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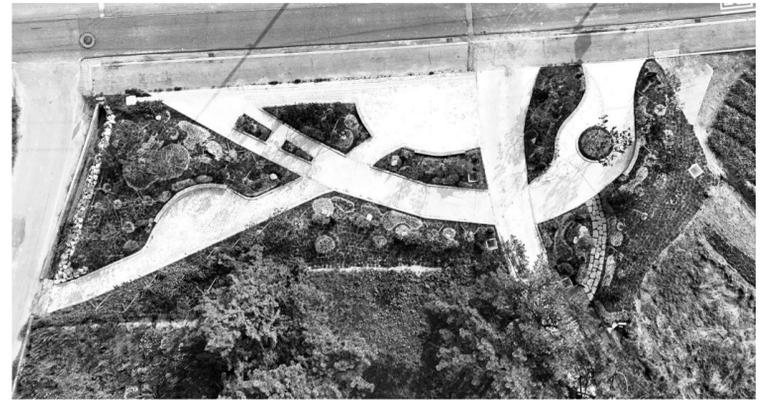
#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하자

### 화순군 25~26일 국제학술포럼 국내외 전문가 관리 방안 등 마련 세계유산 신청서 제출 자료 활용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국제학술포럼이 열린다. 화순군은 25~26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자

료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다. 심포지엄 첫 날인 25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화순 운주사지 일원을 답사하고 보존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26일 심포지엄 1부에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현황과 가치'를 주제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조성고려시대 불교미술(민화(재)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사) ▲운주사 석불석탑군 가치 확립을 위한 보존관리(이동식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센터장)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현황과 전략'을 주제로 ▲인도 델리 후마운 묘지 보존관리(라티시 나다 아가칸문화재단 대표) ▲와 푸 사원 석재의 보존관리(암플 생파르찬 라오스 파세지역 세계문화유산지역 관리소장) ▲석조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조셉 킹 전 ICCROM 선임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전득염 전남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이경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명예교수, 엄기표 단국대학교 교수, 허권 몽골국립대학교 부총장, 서정호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열린다. 화순군은 이번 포럼을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신청과 세계유산 신청서 제출 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포럼을 통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관리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하늘에서 본 함평군 대동면 생활밀착형숲 전경. <함평군 제공>

## 함평군, 탄소저감·폭염 완화 생활밀착형숲 조성

### 대동면 팽나무숲 주변 조성 완료

함평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속 정원 공간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함평 대동면 팽나무숲 주변에 조성한 '2024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이 지난 달 완료됐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은 탄소 저감과 폭염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권 정원 조성 사업이다. 탄소흡수원 확대와 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총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대동 향교 팽나무숲과 함평군 향토문화 유산 1호인 월산사 일원

에 실외 공원을 조성했다. 실외 정원에는 동백나무와 블루아이스 등 조경수와 함께 돌단풍, 꽃잔디 등 초화류를 식재했으며 데크와 앉음벽 등 휴게 시설도 설치돼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군은 정원이 녹색 생활공간으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생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탄소 저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실외정원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히 쉬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난 20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일원에서 열린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 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담양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 걷기행사 마무리

### 메타세쿼이아 길·홍보관 탐방

담양군이 지난 20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일원에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을 앞두고 지역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담양 지역 지질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 전남대 무등산권 지질관광사업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담양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함께 걸으며 지질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관을 방문, 해설사 안내로 담양지역 지질

명소와 기후변화 대응 사례, 생태·문화·지질이 어우러진 지역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질공원 운영기간 유대와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는 7월 예정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에도 철저히 대비해 담양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 장성군 경로당 25곳 냉장고·에어컨 교체

### 취약층 노인보호 대책 본격 추진 폭염대비 어르신지킴이 등 가동

장성군이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층 노인 보호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장성군은 '2025년 폭염 대비 보호 대책'에 따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노인 이용 시설 25곳의 냉장고, 에어컨을 6월 말까지 교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은 재가동을 위해 정소를 마치고 냉방비도 넉넉하게 지원한다. 혹서기 노인일자리사업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동 시간을 조정하고 근무 시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독거노인을 돕는 생활지원사에 대한 혹서기

대응 교육도 강화했다. 장성군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생활지원사 100명, 어르신지킴이단 60명을 적극 활용하고, 응급 안전 안심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취약층 노인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야간에도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개방하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흥군, 취약계층 100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 공직자 모금으로 20만원씩 지급

장흥군은 독거노인, 장애인, 은둔형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1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20만 원씩 장흥사랑상품권을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장흥군 공직자들이 매일 자발적으로 기탁한 '한사랑나눔 성금'과 주민과 기업의 나눔을 통해 조성된 기탁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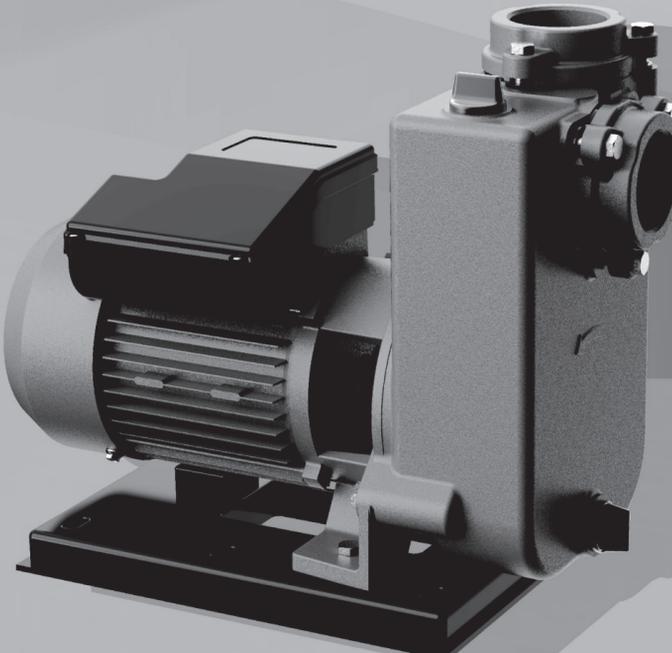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현금 대신 지역화폐인 '장흥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공직자와 주민 모두가 함께한 따뜻한 지역사랑의 결실"이라며 "충족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흥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나주시, 영산포 상권 활성화 60억 투입

### 전남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선정

나주시가 '2025년 전남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영산포 흥어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0억 원을 투입해 K-푸드를 테마로 한 '글로벌(glocal)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영산동 일원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역 특화 먹거리 관광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에

서 국가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돼, 전남도의 공모 절차와 중기부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나주시는 영산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율상권 기반 조성고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영산강 15일의 기적, 흥어의 꿈?대한민국 최대의 K-푸드 글로벌 상권'을 주제로 상권 브랜드 개발, 특화상품·콘텐츠 기획,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 연계 문화축제 등 2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